

“전남체육 발전 각자 위치서 최선을다하자”

김용봉 전남도체육회 사무차장 정년 퇴임

김용봉(60) 전남도체육회 사무차장이 정년퇴임했다.

김 사무차장은 25일 도체육회 회의실에서 도청, 도교육청 등의 유관기관 및 가맹경기단체 전무이사, 사무처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년 퇴임식을 가졌다.

2006년 11월 1일 총무부장으로 입사한 김 사무차장은 6년여동안 함께한 도체육회와의 인연을 접고 ‘자연인’으로 돌아가게 됐다.

김 사무차장은 지난 2008년 전남 일원에서 개최된 제89회 전국 체육대회와 2009년 제39회 전국소년체육대회의 성공 개최에 큰 역할을 했고, 전남 체육 위상을 대내외적으로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 사무차장은 퇴임사에서 “그동안 전남 체육에 기여한 업적에 비하여 훨씬 더 큰 보답과 혜택을 받았음에 감사하다”며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에 만족하지 말고, 태산같은 자부심



김용봉(앞줄 왼쪽 두번째) 전남도체육회 사무차장이 정년 퇴임식 뒤 체육회 직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전남도체육회 제공

을 갖고 항상 주인의식속에 매사 자발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우리 전남체육회가 더욱 번영할 수 있도록 주어진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주셨으면 한다”고 당부의 말도 잊지 않았다.

한편 김 사무차장은 퇴임 후 고향인 무안군 해제면에서 농사일로 ‘인생 2막’을 열 계획이다.

고강인 기자 kiko@jinibo.com

14.0 X 14.4 cm

무등일보

2012년 06월 26일 (화)
18면 인물

“평범한 농사꾼으로 제2인생 설계”

김용봉 전남도체육회 사무차장 퇴임

김용봉(60) 전남도체육회 사무차장이 최근 정년 퇴임식을 갖고 공직 생활을 마감했다.

김용봉 사무차장은 25일 오전 전남도체육회 회의실에서 전남도청, 전남도교육청 등 유관기관 및 가맹경기단체 전무이사, 사무처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년 퇴임식을 가졌다.

김용봉 차장은 지난 2006년 11월부터 6년 동안 일한 전남도체육회와의 인연을 접고 평범한 자연인으로 돌아가게 됐다. 그는 퇴임 후 고향(무안군 해제면)으로 돌아가 농사를 지으며 ‘제2의 인생’을 설계할 계획이다.

그는 95년 교단을 떠나 무안군 농민회 지도위원, 민주당 무안·신안 지구장 부위원장으로 활동했으며 지난 2006년 11월부터 전남도체육회 총무부장으로 체육계와 첫 인연



을 맺었다.

그는 지난해 6월 사무처 직원으로서 최고의 영예인 사무차장으로 승진했다.

특히 김용봉 사무차장은 지난 2008년 31년만에 전남에서 열린 제89회 전국체육대회와 2009년 제39회 전국소년체육대회의 성공 개최

에 뛰어난 역량을 발휘했다.

김용봉 사무차장은 퇴임사에서 “그동안 전남 체육에 기여한 업적에 비해 훨씬 더 큰 보답과 혜택을 받았다”며 “여러 사람들의 도움과 협조를 잊지 않고 삶의 소중한 추억으로 간직하겠다”고 말했다.

최민석기자

16.8 X 14.2 cm

김용봉 전남도체육회 사무차장 정년 퇴임

6년간 체육회 근무... '제 2인생' 설계

전남도체육회 김용봉 사무차장(60)이 정년 퇴임했다.

김 사무차장은 25일 오전 11시30분 전남체육회 회의실에서 정년 퇴임식을 갖고 6년간의 체육회 생활을 마쳤다.

김 사무차장은 “그동안 전남 체육에 기여한 업적보다 훨씬 더 큰 보답과 혜택을 받았다. 감사하다”고 말한 뒤 “특히 6년간 동고동락한 동료 직원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오늘의 영예를 맞이하지 못했을 것이다”고 퇴임 소감을 밝혔다.

1976년 전남대 농과대학을 졸업하고 1977년부터 무안 해제중에서 교육자의 길을 접어든 김 사무차장

은 1995년 개인적인 사정으로 교단을 떠났다.

김 사무차장은 2006년 11월 전남도체육회 총무부장으로 체육계와 인연을 맺었다.

2008년 31년 만에 전남에서 열린 '제89회 전국체육대회'와 2009년 '제39회 전국소년체육대회'의 성공 개최에 뛰어난 역량을 발휘한 김 사무차장은 전남 체육의 위상을 대내·외적으로 드높이는데 선도적인 역할을 다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김 사무차장은 지난해 6월 사무



처 직원으로는 최고의 자리인 사무차장으로 승진했다.

김 사무차장은 퇴임 후 고향인 무안 해제면에서 농사를 지으며 '제2의 인생'을 설계할 계획이다.

김 사무차장은 “주어진 현실에 만족하지 말고 자부심과 주인의식을 갖고 전남 체육회가 변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소연 기자 sypassion@

16.7 X 11.8 cm

무등일보

2012년 06월 26일 (화)
16면 스포츠

광주 매일신문

2012년 06월 26일 (화)
18면 인물

제52회 전남도체육대회 준비 시작

내년 장흥서... 운영개선평가회 개최

내년 장흥에서 처음 열리는 제52회 전남도체육대회 준비를 위해 행보가 시작됐다.

전남도체육회는 지난 22일 장흥군청 회의실에서 가맹경기단체 및 시·군 체육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올해 구례에서 열린 제51회 대회 결산과 내년 제52회 대회를 준비하는 '제51회 전라남도체육대회 운영개선평가회'를 가졌다.

이날 평가회에는 이명흠 장흥군수, 김관수 도교육청 체육복지과장, 김양환 광양시체육회 상임부회장(이상 전남체육회 이사), 개최지인 김용일 장흥군체육회 상임부회장과 조주열 사무국장 등이 참석했다.

평가회에서는 전남도체육대회

의 본래 취지인 도민에게 스포츠 정신을 널리 확산시키고 도민 화합 도모, 경기력 향상 및 대회 활성화에 위한 운영개선책 등이 집중 논의됐다.

이를 위해 참석자들은 가맹경기단체 및 시·군에서의 운영 개선 요청사항을 간추려보면, 골프와 정구종목에서 종목 활성화를 기여하는 취지에서 참가자격을 변경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 전남도체육대회를 통한 경기력 향상 및 경기종목별 특성(성격)에 따른 경기운영 방법 다양화, 선수확보 여건을 갖춘 일부종목의 학생부 참가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혼성, 통합 분리 운영으로 전남체육대회를 활성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최민석기자



김용봉 전남도체육회 사무차장 정년 퇴임

김용봉 전남도체육회 사무차장(60)이 25일 정년 퇴임식을 갖고 6년간 정든 도체육회를 떠났다.

김용봉 사무차장은 이날 전남도체육회 회의실에서 도청, 도교육청 등의 유관기관 및 가맹경기단체 전무이사, 사무처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퇴임식을 가졌다.

지난 2006년 11월 전남도체육회와 인연을 맺은 김 사무차장은 평소 온화한 성품을 바탕으로 직원들의 화합과 우의를 다져 2011년 6월 사무처 직원으로는 최고의 영예인 사무차장으로 승진했다.

특히 김 사무차장은 31년만에 전남에서 열린 제89회 전국체육대회(2008년)와 제39회 전국소년체육대회(2009년)를 성공적으로 치러 전남 체육의 위상을 드높이는데 큰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김 사무차장은 퇴임사에서 “그동안 전남 체육 발전을 위해 기여한 것 보다 받은 게 너무 많아 감사드린다”면서 “비록 몸은 떠나더라도 마음은 항상 전남 체육을 잊지 않고 살아갈 것이다”고 밝혔다.

/임채만 기자 icm@kdaily.com

11.1 X 14.3 cm

11.4 X 14.6 cm